



골흡수가 심한 환자의 총의치 제작과정

김여진*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심한 치주질환으로 인해 상악의 모든 치아의 발치가 불가피한 경우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구강 환경과 치아 상실에 따른 심리적인 실망감 등으로 총의치 장착에 많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상악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fixed implant supported prosthesis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골질, 골양, 해부학적 한계들, 환자의 경제력, 환자의 전신 병력으로 인한 수술의 위험성 등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 overdenture는 총의치와 비교하여 골흡수 방지 및 안면의 심미성 유지, 보철물의 안정성과 유지력 향상, 저작 효율 및 교합력 증가, 발음의 향상, 감소된 의치 크기라는 점에서 잇점을 가지며 임플란트 지지 고정성 보철물과 비교했을 때는 비용 절감 및 예후가 불량한 임플란트 식립의 필요성 감소, 심미적(입술지지), 관리 및 수리의 용이성, 야간 비기능성 운동의 방지를 위한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는다.

상악의 경우엔 하악보다 골양이나 골질의 불리함,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 제작의 어려움과 불완전한 예후로 인해 하악에 비해 성공률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Zitzmann과 Mrinello는 상악 무치악 환자에서 5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overdenture로 치료한 결과 고정성 보철물의 임플란트 성공률과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상악 overdenture의 의치상은 총의치를 제작

할 때처럼 구개부 전체를 덮는 형태와 구개부를 제거한 horse-shoe type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는데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좋은 곳에 위치시킬 수 있으면 구개부의 피개를 피할 수 있는 horse-shoe type(palatal-free type)의 의치를 제작할 수 있다.

하악의 경우는 해부학적 제약이 있으나 골질이 좋아 이공 사이에 2~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overdenture를 장착해 주는 경우 높은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진 46세 여자 환자로 상악 잔존치를 모두 발치한 후 통상의 임시 총의치를 사용하게 하였다. 약 2~3개월 후 상악은 #12, #14, #16, #22, #24, #26 위치에 6개의 Osstem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악은 이공 사이 4개의 Anklyos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상악은 힘의 분산이 용이하며 유지력이 우수한 bar type의 attachment를 사용하였고 하악의 경우 konus denture의 원리를 적용한 SynCone abutment를 이용하였다. 하악은 식립 즉시 부하가 가능한 보철 형태였으나 초기 고정력이 미흡하여 2-stage로 접근하여 최종 보철을 시행하였다 특히, 이 증례의 환자는 gag reflex가 심하여 상악의 구개부의 피개를 피하는 형태로 완성하였고 환자가 만족 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